



스위스재보험, 2008년 순손실 8억 6천 4백만스위스프랑 기록.  
 견실한 언더라이팅 실적, 투자손실로 상쇄.  
 스위스재보험, 추가적 자산 포트폴리오 위험축소 및 자본력 강화 확고

Contact: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Corporate Communications, London  
 Telephone +44 20 7933 3445

Corporate Communications, Korea  
 Telephone +82 2 397 0308

Corporate Communications, New York  
 Telephone +1 212 317 5663

Investor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4444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www.swissre.com

**2009년 2월 19일, 취리히** - 스위스재보험은 2008년 8억 6천 4백만 스위스프랑의 순손실, 자기자본이익률 -3.4%를 기록했으며 이는 주로 투자손실에 기인한다고 보고했다. 극단적인 금융시장 불안과 보험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한 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재보험의 근간사업인 재보험 부문은 견실한 실적을 거두었다. 스위스재보험은 추가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위험축소 및 자본력 강화를 위해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의 스테판 리페(Stefan Lippe) 최고경영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업실적이 분명 만족스럽지는 않다. 침체된 경제여건 속에서도 자사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부문은 매우 양호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지만 투자손실이 사업실적에 영향을 주었다.”

“스위스재보험은 투자 포트폴리오 위험축소 및 장기적 관점에서 재무건전성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이 모든 조치는 향후 더욱 견실한 회사를 구축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재무 건전성 회복 및 유지

스위스재보험은 2007년 42억 스위스프랑의 순이익을 기록했으나 2008년에는 8억 6천 4백만 스위스프랑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2007년 주당순이익은 11.95 스위스프랑, 자기자본이익률 13.5%를 기록했고 2008년에는 -2.61 스위스프랑의 주당순이익과 -3.4%의 자기자본이익률을 기록했다.

자기자본은 연간손실, 미실현 투자손실 및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2007년의 319억 스위스프랑에서 2008년 205억 스위스프랑으로 감소했다. 주당순자산은 2007년말 기준 92.00 스위스프랑에서 60.96 스위스프랑으로 감소했다.

2009년 2월 5일 발표된 바와 같이, 스위스재보험은 사업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력 강화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스위스재보험은 단기간에 사모자본 솔루션을 확보할 수 있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게 되면 버크셔 해서웨이에 30억 스위스프랑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것이다. 이는 스위스재보험의 사업기반이 여전히 견실함을 입증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주주들에게 최대 1억 8천주까지의 신주발행에 대한 승인을 제안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신주를 발행할 계획은 없다.

스위스재보험은 추가적인 조직 단순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효율 향상을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자사의 자본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감안하여 이사회는 배당금을 0.10 스위스프랑으로 감소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근간사업의 견실한 수익력**

스위스재보험의 근간사업은 견실한 수익력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은 45억 스위스프랑을 기록했다.

손해보험 부문의 2008년 합산비율은 97.9%(할인률 적용전 96.1%)로 4년 연속 우수한 언더라이팅 실적을 기록했다. 사이클 관리 및 높은 합산비율의 영향으로 2008년 영업이익은 2007년에 비해 39% 감소한 27억 스위스프랑을 기록했다.

생명보험 부문 또한 견실한 언더라이팅의 영향으로 85.5%의 지급률을 기록했다. 주로 비현금 항목의 영향으로 2008년 영업이익은 2007년에 비하여 47% 감소한 6억 9천 7백만 스위스프랑을 기록했다.

자산운용 부문은 2008년 어려운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0.6%의 총 투자수익률을 기록하며 견실한 실적을 유지하였고, 영업이익은 2007년에 비해 30% 감소한 59억 스위스프랑을 기록했다.

#### **추가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위험축소 조치 확고**

스위스재보험은 매각 및 헤징을 모두 이용, 자사의 투자 포트폴리오 위험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다. 2008년말 기준 투자자산 포트폴리오의 56% 이상이 현금, 단기 투자증권, 국공채 및 정부보증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범위한 사채 포트폴리오 헤징 프로그램으로 2008년 26억 스위스프랑의 수익을 기록했으며, 자산운용 부문 포트폴리오의 증권화 상품은 높은 투자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이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상품은 현재 레거시(Legacy)팀이 관리하고 있다. 이들 상품 중에는 구조화 신용디폴트스왑(SCDS), 포트폴리오 신용디폴트스왑, 금융보증 재보험(Financial Guarantee Re) 및, 기존 거래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9년 2월 5일 스위스재보험의 2008년도 임시 사업실적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활동으로 SCDS에서 발생한 20억 스위스프랑의 시가평가 손실을 포함, 연간 약 59억 스위스프랑의 시가평가 손실을 기록하였다.

## 전망

스위스재보험의 견실한 수익력은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부문 모두에 있어 고객수요 증가 및 재보험 가격 개선 등으로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기반 약화에 따라 보험사들이 추가적인 위험회피 성향을 보이면서 재보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09년 1월의 재보험 계약갱신 결과, 효율이 약 2% 인상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체 보험료수입은 현 환율 기준으로 약 6% 증가했다. 스위스재보험의 최고경영자 스테판 리페는 “이번 1월 계약갱신의 결과는 고객들의 자사에 대한 신뢰가 변함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스위스재보험은 재물보험처럼 가격조건이 긍정적인 보종에서는 확장을, 특종, 자동차 및 상해보험과 같이 비교적 가격조건이 떨어지는 보종에서는 규모 감소를 통해 계속해서 시장의 사이클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이러한 가격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다른 상품 및 시장으로의 확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생명보험사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Admin Re® 또는 다른 재보험 솔루션을 통한 기존 보유포트폴리오의 자본 유동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지속적으로 견실하게 유지되어 온 언더라이팅 실적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이는 전반적으로 이익률이 저조한 시장 환경에서 성공의 핵심 요건이다. 스위스재보험은 일반적인 수준의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 2009년 95%의 합산비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편집자 주

### 스위스재보험

스위스재보험은 세계 최대의 다각화된 글로벌 재보험사 중 하나로 전세계 25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863년 스위스 쥐리히에서 창립된 이래 기업과 기업발전에 중요한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손해보험 상품, 생명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전통적 재보험 상품과 더불어 보험 기반 기업금융 솔루션과 보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로부터 'A+' 를, 무디스(Moody's)로부터 'Aa3' 를, 에이엠 베스트(A.M. Best)로부터 'A+' 를 각각 부여 받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913년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1,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그 지역 본부는 홍콩에 있다. 2006년 스위스재보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첫 사무소를 개설한지 50년을 맞이했다.